

조선시대 동유(桐油) 사용의 진위

The Authenticity of the Use of Tung Oil in the Joseon Dynasty

장 영 주

Jang, Young-Joo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박사수료)

류 성 룡*

Ryoo Seong-Lyong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ere are records and claims that tung oil was applied to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and furniture as finishing paint. Records of the use of tung oil(桐油) exist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and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儀軌). However, there is also a claim that tung oil was not produced in Korea on its own, and that tung oil was not applied to important buildings such as palaces. Silhak scholar(實學者) Seo Yu-gu says that in Korea, people do not know how to grow tung trees, and boiled perilla oil is called tung oil. If tung oil was used in the Joseon Dynasty, it would be necessary to use tung oil for waterproof coating to preserve current architectural heritage, otherwise, tung oil coating would not be desirable. Analyzing the Yeonggeon Uigwe(營建儀軌) among the Joseon Dynasty's Uigwes shows that tung oil is neither mentioned nor us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Uigwes mentioned in tung oil, it was found that perilla oil or Myeongyu(明油), not tung oil, was recorded in the actual material used. Therefore, the records of the use of tung oil during the Joseon Dynasty can be seen as records using Myeongyu(明油) or Beopryeon perilla oil(法煉荏油).

주제어 : 동유, 건성유, 단청, 명유

Keywords : Tung Oil, Drying Oil, Danchong, Myeongyu

1. 서 론

승례문 복원과정에서 단청작업을 마치고 단청채화 위에 동유가 도포되었다. 사용된 동유는 끓이지 않은 순동유(pure tung oil)였다. 그런데 이 동유가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된 동유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한 언론이 취재하고는 우리 문화재의 복원에 외국산 도료가 사용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강하게 질타하였다. 감사원은 동유 도포가 화재 위험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컸으나 동유 도포가 강행되었다고 지적¹⁾했다. 그러나 동유(桐油) 사용이 조선시대에 행해지던 전통이라면 국내산 동유가 생산 공급되지

않는 현실에서 대안으로 수입 동유를 사용한 문화재당국의 결정은 오히려 타당할 것이며 전통 옷칠에서 사용되는 희석제 송유(松油)인 테레핀유의 사용을 금지해야 할 이유 역시 없을 것이다. 테레핀유가 증발하고 나면 희석제로 인한 화재 위험성은 더 이상 남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은 오히려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였다.

승례문 복원에 동유(桐油)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동유는 현재 중국과 고궁이나 문화재의 보존 수리에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성 도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시대에 건물의 단청이나 기둥에 동유를 바른 기록이 있다. 그래서 현재 조선시대에 동유(桐油)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동유(桐油)가 조선시대에 사

* Corresponding Author : ryooosl@korea.ac.kr

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14.5, p.197. '승례문 전체에 동유와 테레핀유를 도포하여 화재위험성을 최대 4배 증가시킴'

용되지 않았다는 기록 역시 존재하고 있다. 여러 민간 기록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유 재배를 몰라 끓여 만든 들기름을 동유(桐油)라고 불렀다고 한다. 만약 조선 시대에 동유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승례문 복원에 수입산 동유를 사용한 결정은 아무런 정당성도 얻을 수 없는 잘못된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전통재료가 아닌 테레핀유로 희석한 동유를 승례문 전체에 도포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시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²⁾는 감사원의 지적은 동유(桐油) 사용이 우리의 전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한 채 내리고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 설득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전통 건조물에 동유(桐油) 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목조 건물을 외부의 비와 습기로부터 막아주는 마지막 도장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잘 보여준다. 전통건축물의 동유(桐油) 도포 여부는 목조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문헌에서 동유관련기록을 분석하고 조선왕조의례에 등장하는 동유(桐油)기록과 실제 사용된 재료를 분석하여 조선시대에 동유 사용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2. 동유(桐油) 사용 기록

1970년 문화재관리국에서 펴낸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81호 단청』에 의하면 단청의 채화(彩畫)가 끝나고 나면 그 위에 동유(桐油)를 바른다고 한다.

施彩나 彩畫가 끝났을 때 木部에는 오동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桐油=油桐, 乾性的 기름)을 인두로 지지면서 塗布한다. 桐油는 防水성이 강하여 桐油를 먹인 桐油紙는 갓모나 비옷에 쓰이기도 한다. 간혹 明油나 法油를 붓으로 칠하여 바르기도 하나 그것은 次上의 방식이다.³⁾

이 구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선 왜 동유를 인두로 지지면서 도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이다. 전통 건축물에 동유 도장이 보편화 되어 있는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공정이며 동유를 인두로 지지면서 도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전칠기 작업에서 나전을 인

두로 지지면서 붙인다. 그 이유는 아교의 수분을 증발시켜 접착을 강하게 하기 위함인데 건성유인 동유는 수분 증발로 건조하는 것이 아닌 산소와의 화학결합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불필요한 노동력이 상당히 소요될 뿐이다. 이 보고서에는 문헌에 나오는 칠 방식을 옮겨 싣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와 『임원경제지』⁴⁾가 인용하고 있는 『다능집(多能集)』,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중 유옥재법(油屋材法)을 소개하면서 채화를 하지 않는 집은 송유(松油)를 문지르면서 바른다고 하면서 출전을 금화경독기라 밝히고 있다. 만약 송지(松脂)를 바를 때 인두로 녹여가며 바른다면 그 방식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를 인두로 지지면서 도포한다는 것은 실제 단청작업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기록한 것이라기 보다는 문헌에 나오는 방식을 혼합하여 적은 것으로 의심된다. 더군다나 조선왕조의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된 명유(明油) 도포를 동유(桐油) 도포보다 못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전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록은 이후의 단청 관련 서적에 재인용되고 있다. 1991년 출간된 장기인의 『단청』에서는 ‘동유(桐油, 桐實油)는 방수효과가 크고, 내구력도 있다. 옛날에는 이것을 칠하고 인두로 지지서 견고하게 고화시켰다고 한다’⁵⁾라고 동유 도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배만실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조선시대에 사용된 유도장(油塗裝)에는 식물성유인 임유(荳油), 두유(豆油), 동유(桐油), 호도유(胡桃油) 등이 있다’⁶⁾고 하면서 조선시대에 동유(桐油)가 사용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후 여러 논문에서 이러한 기술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정확한 재검증을 요하는 사안들이다.

3. 동유(桐油)의 특성

동유는 대극과(大戟科)의 식물인 유동(油桐)의 열매에서 짜낸 기름인데 유동나무(학명 *Vernicia fordii*)는 높이 10미터 정도 자라는 낙엽교목⁷⁾으로 주로 중국 남

4)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임원경제지의 표지는 임원경제지, 목록과 각 권에는 임원심육지로 표기 되어 있다.

5) 장기인, 『한국건축대계3 단청』, 보성문화사, 1991, p.181

6) 배만실,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p.243

7) 百度(Baidu)百科, “油桐”항목, www.baidu.com

2)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14.5, p.330

3)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81호 단청』, 1970

부지역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오동(梧桐)나무와 유사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동나무는 꿀풀목 오동나무과(학명 Paulowniaceae)이고 유동(油桐)나무는 말피기목 대극과(大戟科)로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 않고 일제시기에 인공 식재되어 지금에 이른다. 동유는 기름에 독성이 있어 식용은 불가능하지만 건조가 빠르고 단단한 피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건물의 도장과 가구의 칠, 배의 방수 용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아마씨유와 들기름은 주요 구성성분이 오메가3지방산, 오메가6지방산으로 비슷하지만 동유(桐油)는 전혀 다른 지방산을 주성분으로 한다. 알파 엘레오스테아린산(Alpha-eleostearic acid)이 전체의 90%⁸⁾에 달하는데 오메가3지방산처럼 이중결합이 3개인 구조로 강한 건조성을 지닌다.



그림 1. 유동(油桐)나무 (출처: 필자 촬영)

중국에서 사용되던 동유는 서구로 수출되면서 텡오일(tung oil)이란 명칭을 가지게 되고 오늘날에는 도료로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마씨 기름을 주재료로 한 건성유 도료보다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이 동유에 건조제를 첨가해 끓여 가구에 바르기도 하고 석회, 벽돌가루 등과 섞어 배의 틈을 메우거나 목조건물의 표면에 발라 건물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동유는 건성유(drying oil)로 분류되는데 건조도의 지표인 요드가(iodine value)가 160-175 정도⁹⁾로 들기름과 아마씨기름보다 요드가가 낮지만 건조속도는 통

상적으로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피막의 단단한 정도도 아마씨기름보다 나은 것으로 여겨져 우수한 도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2. 중국 고건축 수리 현장의 동유 끓이기 (출처: 土木在線 <https://bbs.co188.com>)

동유의 지방산인 동유산(桐油酸, Alpha-eleostearic acid)은 다른 건성유와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 저질로 산화하면서 이웃한 지방산과 연결되어 거대한 고분자형태를 띠게 되는 중합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중합과정의 결과로 유동적인 액체가 고체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생동유를 가열해 275-280℃의 온도에서 20-30분 유지하게 되면 기름 속의 휘발 물질이 증발하고 부분 수지화가 진행¹⁰⁾되어 건조가 빨라지게 된다. 이런 중합과정은 동유를 끓이면서 금속성 건조제(drier)를 첨가하게 되면 더욱 급속히 빨라지게 된다. 자연상태에서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건조과정은 이러한 건조제를 넣고 끓이는 과정을 거치면 하루 정도에 건조하게 되어 도료로 기능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건조제는 산화납, 무명이(無名異), 밀타승(密陀僧), 황단(黃丹) 등으로 납과 망간과 같은 금속성분이 촉매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조선에서 사용되던 명유(明油), 일본에서 사용되던 밀타유(密陀油), 서구의 보일드린시드오일(boiled linseed oil)의 제조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명유와 밀타유는 건성유인 들기름을 주로 사용하고 서구에서는 아마씨유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송(宋)대의 『영조법식(營造法式)』에 기록된 동유를 끓이는 방식은 동유를 은근한 불과 센 불을 사용해 끓이다가 곱게 간 납 성분의 정분(定粉)을 넣고 마지막에 황단(黃丹)을 넣고 저어서 식혀 만든다.¹¹⁾ 이렇게 끓인

8) 陳關惠, 「桐油塑料」, 『化學世界』, 제9권, 上海, 1954

9) wikipedia, "iodine value"

10) 陳關惠, 「桐油塑料」, 『化學世界』, 제9권, 上海, 1954, p.490
'生桐油加熱到接近沸點溫度 (275-280℃), 業維持 20-30分鐘, 則油內含會分出部份的揮發物質, 並發生局部樹脂化.'

동유는 실푼지를 사용해 단청 위에 도포되게 된다. 송(宋)나라 시기가 지나면 숙동유(熟桐油) 제조에 아라비아(大食國)에서 전해진 무명이(無名異)가 첨가된다. 청나라 초기에 동유를 끓이는 방식은 동유 100근에 무명석(土籽) 6.25근, 황단 6.25근, 밀타승 6냥 4전의 비율¹²⁾이었다.



그림 3. 심양고궁(沈陽故宮) 유칠(油漆) 과정
(출처: 搜狐新聞 2012. 7. 13)



그림 4. 북경 정양문(正陽門) 유칠(油漆) 작업
(출처: 和訊新聞 2021.10.31)

이러한 동유를 가공한 도료인 숙동유(熟桐油)는 선박의 방수도료와 우비 등에 사용되었고 목조건축물의 표면에 도포되었다.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 시기가 되면 건물 목재의 표면에 삼(麻)섬유와 석회 동유의 혼합층이 두껍게 도포되고 채색이 이루어진 후에 그 위에 다

시 동유가 표면에 도포되어 목재의 재질이 느껴지지 않는 외관을 가지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전통건축의 외관은 우리의 전통건축과는 상당히 달라지게 된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의 동유 사용의 기록

중국에서 동유를 배의 틈을 메우는 방수 충전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중국을 다녀온 사신과 실학자들에 의해 알려졌다. 문종1년(1451) 통사(通事) 김퇴(金退)는 중국에서 ‘배의 틈을 숙마(熟麻)로 막고 또 석회를 동유(桐油)에 섞어 바르는데 동유가 없으면 어유(魚油)나 마유(麻油)도 가하다’고 문종에게 서계를 올리니 문종은 이 글을 성과 배를 수리하는 관아(修城典船色)로 내려보냈다.¹³⁾ 1720년 숙종이 승하하자 고부청시습사(告訢請諡承襲使)의 정사로 제수된 이이명(李頤命)은 외아들 이기지와 함께 7월 27일 연행길에 올라 이듬해 1월 8일 한양으로 돌아 온다.¹⁴⁾ 이때의 사행과정을 아들 이기지(李器之, 1690~1722)는 『일암연기(一庵燕記)』라는 기행문에 기록해 두었다. 이기지(李器之)는 9월 18일 북경 동쪽 내륙 항구인 통주(通州)에서 강남에서 온 조운선에 올라 선주 만천형(萬天衡)에게 질문을 하였다. 선주는 동유(桐油)와 관련해 상세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배 갑판의 이음새에는 동유(桐油)에 석탄을 섞어 바른다고 하는데, 동유는 어떤 것입니까?”

“조선에서도 배를 물 텐데, 만약 동유가 없다면 어떻게 배를 운항합니까?”

“조선에는 동유가 없으며, 사용하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동유가 나는 나무는 오동나무와 다른니까?”

“그것은 동자수(桐子樹)의 열매로 만드는데, 그 수종이 오동나무와는 다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꽃잎의 크기가 복사꽃이나 오얏꽃과 같고 모양은 치자꽃과 비슷한데 붉은색과 흰색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는 푸른빛을 띠고 둥글며, 그 크기는 포도와 비슷합니다. 기름을 취하는 방법은 마(麻) 기름을 짤 때와 같습니다. 이 나무는 남쪽 지방에는 많지만, 북쪽 지방에는 없습니다.”¹⁵⁾

11) 『營造法式』卷十四, 煉桐油之制
‘用文武火煎桐油令清先煉膠令焦取出不用次下松脂攪候化又次下研細定粉粉色黃滴油於水內成珠以手試之黏指處有絲縷然後下黃丹漸去火攪令冷合金漆用如施之於彩畫之上者以亂絲揩搨用之’

12) 路化林, 『中國古建築油作技術』,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0, p.37

13) 『조선왕조실록』 문종 1년 3월 3일,
‘船之罅隙, 用熟麻填塞之, 又以石灰和桐油塗之, 無桐油, 則魚油、麻油亦可’

14) 신익철, 『1720년 李頤命·李器之 부자의 연행과 北學의 성격』, 『藏書閣』, 제49집, 2023

15) 李器之, 『一庵燕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1720. 9. 18
‘問: “缸板之縫用桐油和石灰塗之云, 桐油是何物?” 答: “朝鮮亦會使缸, 若無梧油, 何以使缸?” 余言: “朝鮮無桐油, 亦不會用法, 桐油之樹與

이 두 가지 기록은 이기지의 말처럼 조선에는 동유(桐油)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성종19년(1488)에 홍치제(弘治帝)의 등극을 알리는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명나라 동월(董越)은 『조선부(朝鮮賦)』라는 글 속에서 조선에는 동유(桐油)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있다.

궁실의 제도와 화려함 역시 같아 그 칠은 모두 붉다. 나라에 은주(銀朱)가 없어 단(丹)으로 대신하며 동유(桐油) 역시 없다.¹⁶⁾

은주(銀朱)는 천연광물인 주사(朱砂)와 달리 수은과 황을 이용해 만든 인공주사로 색이 주사보다 더 선명한 것을 말한다. 궁궐에 붉은 칠을 했지만 은주는 사용되지 않았고 동유(桐油) 역시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동유(桐油)가 산출되지도 않고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20여년 뒤인 1509년 중종은 대전상고(廂庫)에 납입하는 동유(桐油)를 견감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廂庫所納, 鄉深黃, 桐油, 冬栢油, 皆不切於用, 竝蠲減¹⁷⁾
(상고에 납입하는 우리나라 심황, 동유, 동백유는 모두 사용이 절실한 것이 아니니 모두 견감하라)

이 기록은 조선에서 동유가 생산되었다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그 생산된 동유가 대전에 진상되었고 중종은 동유 진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상품을 견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유는 우리나라 심황(鄉深黃)¹⁸⁾, 동백기름과 나란히 기록되어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아닌 우리나라 백성들이 생산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유(桐油)가 조선에서 나지 않는 데 어떻게 20년 뒤인 중종 시기에는 동유를 대전에 진상

梧桐異乎? 答:“是桐子樹之實, 其樹不似梧桐, 春開花, 秋結實, 花瓣大如桃李, 形似支子花, 而有紅白兩種, 實色青而圓, 大如葡萄, 取油之法, 與麻油無異, 此樹南邊多, 北邊無之”

16) 董越, 『朝鮮賦』, 사고전서 문연각본
'宮室之制與華亦同其塗皆丹國無銀朱以丹代之 桐油亦無'

17) 『중종실록』 중종 4년(1509) 11월 23일,
'廂庫所納, 鄉深黃 桐油、冬栢油, 皆不切於用, 竝蠲減'

18) 국사편찬위원회 『중종실록』 번역에서는 “상고(廂庫)에 납입하는 지방의 심황색(深黃色) 동유(桐油)와 동백유(冬栢油)는 모두 견절히 쓰는 것이 아니니, 모두 견감(蠲減)하라.”라고 번역하고 있다. 鄉深黃桐油를 ‘지방의 심황색 동유’로 오역하고 있다. 鄉深黃은 ‘우리나라 심황’을 말한다. 深黃은 울금을 말하는 것으로 태종, 세종시기 왜와 유구에서 바치고 있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深黃이 제배되고 있었다.

할 수 있었을까?

1545년 제주에 표류해온 중국인 중 역청(瀝靑) 만드는 법을 아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역청 만드는 법을 전수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역청에는 동유(桐油)가 들어가야 하는데 좌의정 이기(李芑)의 집에 동유(桐油)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장인들에게 전습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신하들이 제시하자 명종이 전습토록 하라고 전교한다. 이기는 1527년과 1539년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바 있다.

역청에는 모두 동유(桐油)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유가 마침 좌의정 이기의 집에 있으니 전습하기를 명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¹⁹⁾

이 기록은 관아에 동유(桐油)가 비축되어 있지 않으며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정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종 때 상고에 납입되었고 백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견감조치 했던 동유가 명종 초에는 생산이 중단되었을 수 있을 것이지만 명확하지 않다.

인조 21년(1643년)에 실록을 보관한 적상산성의 사각(史閣)이 허술하므로 동유(桐油)를 발라야 한다는 청이 있었다. 건물 단청 위에 동유를 바르기를 건의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건물에 동유가 도포되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것이다.

5, 6년에 한 번씩 바깥쪽 기둥머리 장식에 동유(桐油)를 대략 발라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면 나무가 영구히 썩지 않고 단청(丹靑)의 아름다움도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²⁰⁾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4년 전인 1639년에는 동유를 구할 수 없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1639년 『심양장계』에 의하면 청나라가 우리에게 동유(桐油)를 요구하지만 동유를 구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하고 있으며 결국 동유를 제외하고 청화만 보낼 것이라 회신하고 있다.

용골대의 사신 정명수가 관소에서 내관 라업을 불러 말하기를 듣기에 내일 본국으로 간다고 하니 동유 400근과 청화1백근을 가지고 와서 국왕에게 고할 수 있게 준비하여 보내라고 하자 신등과 업은 동시에 말하기를 동유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아 그것을 구할 길이 전혀 없고 청화는 본래 가볍지만 백근의 수 역시 갑자기 준

19) 『명종실록』 명종 즉위년(1545) 11월 3일,
'瀝靑, 竝入桐油云, 而桐油適在左相李芑之家, 請令傳習何如'

20) 『承政院日記』 인조 21년 7월 13일,
'外面柱飾, 五六年內, 一番略加桐油, 以防雨滲, 亦可永久不朽. 其於丹靑觀美, 亦無所損'

표 1. 동유(桐油)에 관한 기록

시기	출전	동유 유무	내용
1448	조선부	×	조선에는 동유 없음
1509	실록(중종)	○	동유 견감 지시
1511	실록	○	칠전(漆箭)에 동유 사용 건의
1545	실록	△	좌의정 이기 동유 소유
1639	십양장계	×	청나라 용골대 동유 요청
1643	승정원일기	○	적상산 사고 단청에 동유칠
1720	일암연기	×	존재하지 않음
1729	승정원일기(수어청)	○	약환통 5000개 동유칠
1753	승정원일기(영조)	○	축판에 동유칠 지시
1800년대 초	임원경제지	×	법련임유를 동유라 칭함
1800년대 초	규합총서	×	들기름으로 동유 만듦
1855	각사등록	×	청나라 표류민에게 동유가 무엇인지 질문함

비하기 어렵다고 다시 말을 막으니 말하기를 동유는 조선에서 유통되지 않으면 왜국과의 무역에서 가치 찾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신 등이 왜국이 동유를 가지고 있는지 역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역해 가져 오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²¹⁾

중관 라업이 영장에게 회신하기를 동유400근 청화100근을 구했지만 동유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아 다만 장차 청화만 호부로 보낼 것입니다.²²⁾

무리한 청나라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동유(桐油)가 나지 않는다고 말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회신처럼 실제로 동유(桐油)가 우리나라에 없었을 확률이 더 높다. 불과 3년 전인 1636년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으로서 동유 400근을 아끼기 위해 청나라를 속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유에 관한 기록은 매우 혼란스럽게 존재한다.

1720년 좌의정을 역임한 이이명(李頤命)을 수행해 중국 사신단으로 갔던 이기지(李器之, 1690~1722)는 ‘조선에는 동유가 없으며, 사용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²³⁾고 말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9년이 지나지 않은 영조 5년(1729년)에 수어청에서는 약통 5,000개에 동유칠을 하고 있다.

본청의 물력이 쪼들려 5,000개의 약환통을 일제히 착칠(着漆)하지 못하고 일단 먼저 기름에 넣고 이어서 동유(桐油)로 착칠하였는데, 그래도 매우 견고하여서 녹녹하고 축축한 기운이 스며들 우려가 없는 듯하여 그대로 남한산성에 있는 9곳의 절에 나누어 보관하였습니다.²⁴⁾

1753년 영조는 축판(祝板)에 동유(桐油)를 바르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축문을 두는 판인 축판의 칠이 영조의 지시와 다르므로 본래대로 송연칠을 하고 그 위에 동유를 바르는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상이 하교하기를 축판은 일찍 송연칠을 하고 동유(桐油)를 바르는 일로 하교했다. 지금 분을 바르는 것을 보니 이것은 쉽게 색이 바래니 당초의 하교대로 고치라.’²⁵⁾

정조때의 사찬법전인 『전율통보(典律通補)』에는 유칠장을 동유칠하는 장인으로 적고 있으며 유구장은 기름에 절이는 장인으로 표기하고 있다.

○油漆匠 동유칠 ○油具匠. 저름저로는장²⁶⁾

경국대전에 상의원(尙衣院)과 군기시(軍器寺)에 소속된 유칠장(油漆匠)으로 기록된 장인은 실록에서는 명유장(明油匠)²⁷⁾으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 유칠장과 명

21) 『瀋陽狀啓』, 1639년 5월 14일, 규장각 소장
‘龍將使鄭命壽來于館所招羅樂言曰聞明日發向本國云桐油四百斤青花一百斤歸告於國王前措備入送云臣等與樂樂一時言曰桐油非本國所產萬無可得之路至於青花則本是浮輕百斤之數亦難卒備再三搪塞則曰桐油南朝則不通雖質於倭國亦可見送云臣等曰倭國之有桐油亦不知之何以質來’

22) 『同文彙考』二, 別編 卷之二, 請求,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 ‘中官羅樂回英將求桐油四百斤青花一百斤而桐油非國產只將青花咨送 戶部’

23) 李器之, 『一庵燕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720, 9.18. 기록 ‘朝鮮無桐油, 亦不會用法’

24) 『承政院日記』 영조 5년 1월 8일,
‘本廳物力凋殘, 半萬藥丸之桶, 不能一齊着漆, 姑先入油, 仍以桐油塗着, 亦甚堅固, 似無漏氣透入之慮, 仍爲分藏於南漢九寺矣’

25) 『承政院日記』 영조 29년 5월 29일,
‘上又下教曰, 祝板, 曾以松烟漆, 加桐油事, 下教矣. 今見塗粉, 此易淪色, 依當初下教改之’

26) 구윤명, 『典律通補』공장각색, 178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27) 『세종실록』, 세종16년 6월 11일
‘明油匠三加四, 漆匠七加二’, 군기감제조가 소속된 장인의 숫자를 늘리

유장은 같은 장이다. 명유장은 17세기 초기의 조선왕조의궤에만 등장하고 그 이후는 가칠장(假漆匠)으로 바뀌게 된다. 이들 명유장과 가칠장이 사용하던 명유는 들기름(法油)에 건조제인 무명석(無名石)과 황단(黃丹)을 넣고 끓여 만든 것이다. 『진율통보(典律通補)』의 동유칠은 법제들기름칠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들기름 끓인 것이 동유(桐油)

조선왕조의궤에서도 동유(桐油)에 관한 기록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유(桐油)가 사용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임원경제지』나 『규합총서』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동유(桐油)는 유동나무의 기름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동유(桐油)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칠물에는 들기름을 사용한다. 법제해 끓인 것을 세속에서는 동유(桐油)라고 부른다. 그 효능과 사용의 모습이 흡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덮어씌운 것이다.²⁸⁾

『규합총서』는 들기름에 무명석과 백반을 넣고 끓인 것을 동유(桐油)라고 부르거나 들기름을 햇볕에 졸인 것을 동유(桐油)라고 부르고 있다. 모두 기름오동나무(油桐)의 씨앗에서 짜낸 동유(桐油)와는 관계없다.

모양 좋은 질그릇에 먹칠을 진하게 하고 야교에 분을 개어 포도를 치거나 초화를 그리고 흑 하엽이나 이청을 칠하고 채화를 하여 들기름, 무명석, 백반을 조금 넣어 숯불 은근한 불로 끓여 동유를 만들어 위에 칠하기를 고루고루 하여 말려 걸으면 화로 종류는 일본 물건같이 아주 빛이나 모양이 좋으니라.

좋은 들기름을 여름에 열날 사기그릇에 담고 종이를 붙여 햇볕에 찌기를 석달 동안만 하면 극히 품질 좋은 동유가 되느니라.²⁹⁾

민간기록에서는 동유(桐油)는 들기름을 끓여서 칠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명확하다. 실학자 서유구(徐有榘)는 중국에서는 오동기름이 아주 널리 쓰이는데 우리 조선에서만 유동을 심고 가꿀 줄 모르기 때문에 동유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드물다고 하면서 마땅

도록 건의하고 있어 명유장은 군기감(軍器監, 세조12년 군기사로 명칭변경)에 소속된 장인임을 알 수 있다; 『세조실록』, 세조6년 8월 1일, '漆匠九, 阿膠匠、明油匠各六'

28) 『林園經濟志』, 贍用志, 法煉在油, '我國無桐油 故一切漆物多用在油製鍊者 俗呼桐油 以其功用之相似而冒其名也'

29) 빙허각이씨, 정양완 역, 『閨閣叢書』, 보진재, 1992

히 종자를 구입하여 널리 심어야 한다고 한다. 왜인들이 중국의 종자를 가져왔다고 하니 만일 중국에서 종자를 얻지 못하면 대마도에서 구입하여도 될 것이다³⁰⁾라고 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동유를 확보하기 위해 유동나무를 한 고을에 3천주씩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桐木之植, 國之急務也。中國之船, 皆用油灰脛縫, 油者桐油也。戰船・漕船, 公・私諸船, 其所須桐油幾千斤矣。一邑三十株, 安所用矣? 必一邑三千株, 分植諸村, 乃可用矣

(오동나무의 식재는 국가의 급선무이다. 중국배는 모두 유회로 배의 틈을 메운다. 그 기름이라는 것이 동유이다. 전선, 조운선, 공과 사의 여러 배에 필요한 동유는 수천근이다. 한읍에 삼십주로 어찌 충분히 쓰겠는가? 반드시 1개읍에 3,000주씩 여러 마을에 나누어 심으면 가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55년 1월 청나라의 상선이 표류해 진도 남도포에 들어오자 이들을 심문하고 수군 통제사 이규철(李圭徹)이 승정원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상선에 철, 석회, 동유(桐油), 삼(麻)등이 실려 있었는데 철, 석회 등은 그 용도를 질문하고 동유에 대해서는 '동유가 무슨 물건인가(桐油何物)³¹⁾'라고 묻고 있다. 이때까지 유동이 전라도 지역에 심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약 유동나무가 존재했고 동유가 생산되고 있었다면 통제영에서 동유(桐油)가 무엇인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다.

6. 조선왕조의궤의 동유(桐油)

민간에서 동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왕실에서는 유동나무의 씨앗에서 짜낸 동유(桐油)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는 조선왕조의궤에 기록된 소요 물품을 분석해보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영건의궤나 수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등에는 사용된 못의 개수까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물에 도포된 칠로는 단청과 단청의 바탕칠인 가칠이 있고 옷칠이 있다. 유성도료(油性塗料)로는 명유(明油), 법유(法油), 동유(桐油), 양명유(洋明油) 등이 사용되었다. 의궤가 남아 있는 1600년 이후 사용된 횡수를 비교해보면 왕실이나 국가적인 사업에 동유 사용

30) 『林園經濟志』, 贍用志

31) 『各司贍錄』統制營啓錄 2, 咸豐五年(1855) 二月十二日, 규장각 소장

표 2. 동유(桐油) 기재 의뢰 및 내용

의뢰 및 등록 기록	연도	내용	동유실소요량 기록	실입(失入)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00	無名石 拾兩 桐油所入	×	법유
璿源錄校正廳儀軌	1680	櫃所着松煙桐油	×	
禁衛營謄錄	1702	瓮子外面幾斗入盛是如以朱書 填塗以桐油	×	
御容圖寫都監儀軌	1713	油芘兩備一件而加漆桐油	×	법유, 명유
先農壇親耕儀軌	1739	不必着全漆, 松烟桐油漆次上下事	×	
端敬王后復位耐廟都監儀軌	1739	假漆匠所用家猪毛二兩, 桐油煮取所用小鼎一坐	×	명유2되

의 빈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규장각의뢰, 서울대규장각의 규장각의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의뢰 및 등록을 대상으로 각 기름을 검색했을 때 표시되는 검색 건수는 다음과 같다. 외규장각의뢰는 양명유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인 1866년 병인양요 이전의 의뢰만 있기 때문에 양명유는 검색되지 않는다. 장서각은 일제시기 이왕직장서각의 자료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표 3. 의뢰별 사용 도로 분류

의뢰	桐油	明油	法油	洋明油
외규장각의뢰	2	1117	1207	0
규장각의뢰	5	1606	1871	15
장서각의뢰 및 등록	1	44	48	22
계	8	2767	3126	38

조선왕조의뢰가 남아 있는 1600년부터 순종의 신주가 종묘에 부묘되는 1928년까지의 기록을 통해 보면 동유는 8회 등장하고 있다. 명유와 법유는 1900년대 초기 양명유가 사용되는 시기에는 사용횟수가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사용되고 있다. 이 8회의 동유 기록 중 『친경의뢰』와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뢰』는 동일한 의뢰가 외규장각과 서울대규장각에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나누어 소장된 것이어서 실제 동유(桐油)가 사용기록은 6회이다. 이 여섯 경우를 분석해보면 실제 동유가 사용되었는 지의 여부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桐油)는 규장각 소장 의뢰와 장서각소장 의뢰, 외규장각 의뢰를 통털어 6회 언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동유(桐油)가 실입(實入)에 포함된 경우는 찾을 수 없다.

1600년의 『자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뢰』에서는 조성재료(造成材料) 항목에 무명석 10냥이 동유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의뢰 전체

에 동유(桐油) 소요량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 위에 들기름(法油) 5말이 단청 용도로 필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무명석 10냥이 단청용 들기름을 끓이는데 사용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法油 伍斗 丹青所用

無名石 拾兩 桐油所入³²⁾

(들기름 5말 단청소용 무명석 10냥 동유에 들어감)

동유(桐油)에 무명석 10냥이 들어가는데 그 재료가 되는 동유(桐油) 대신 들기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유에 필요한 것으로 기록된 무명석 10냥은 들기름 5말을 끓이는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673년 효종의 영릉을 옮긴 기록인 『천릉도감도청의뢰(遷陵都監都廳儀軌)』에 무명석 10냥으로 끓인 들기름의 양도 비슷한 양임을 알 수 있다.

明油三斗六合四夕 煮取所入 法油四斗四升七合五夕 黃丹一斤二錢 無名石十兩 燒木代飛木五百斤³³⁾

(명유 3말6홑4사 끓이는데 들어가는 것, 들기름 4말4되7홑5사, 황단 1근2전, 무명석 10냥, 땀감용 나무 부스르기 500근)

1713년 『어용도사도감의뢰』에도 우비에 동유를 칠한다고 했지만 실제 동유(桐油)는 사용되지 않았다. 어용도사도감에서 사용한 기름은 참기름(眞油), 들기름(法油), 명유(明油) 3종류 뿐으로 참기름 1되 2홑 8사, 들기름1되, 명유 1홑 5사가 사용되었다.

油芘兩備一件而加漆桐油俾無滲漏之患宜當³⁴⁾

(유둔 우비 1건에 동유를 가칠해 물이 새는 근심이 없도록 함이 의당하다)

32)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00

33) 『[孝宗寧陵]遷陵都監都廳儀軌』, 1673

34) 『御容圖寫都監儀軌』, 1713

1739년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3방의궤에서 감실을 만들기 위해 가칠장이 동유를 끓이는 작은 솥을 사용하고 있다.

龕室新造時 假漆匠所用 家猪毛二兩 桐油煮取所用小鼎³⁵⁾
(감실을 새로 만들 때 가칠장이 쓸 집돼지털 2냥, 동유 끓일 작은 솥)

이때 3방에서 제작해야 할 물품은 신주를 모시는 장(槓)인 감실(龕室)과 시책(謚冊), 옥책(玉冊), 제기인 보(篋), 궤(篋), 형(銅), 작(爵), 점(坵), 와등(瓦甑)이 전부였다. 감실의 제작에 소요된 물품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유(桐油) 사용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해당되는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龕室所用物力磨鍊後錄爲去乎依膳錄進排事

各該司良中捧甘何如 堂上手決內依

後

栢子板四立 樓柱二株

礪朱紅二斤 唐朱紅一斤

明油二升 三礪四錢

同黃二錢 石紫黃二錢

黃丹六錢 眞粉二兩

臙脂二片 阿膠一斤

唐荷葉三錢 青花五錢

休紙一斤³⁶⁾

(감실에 소요되는 물품을 마련해 뒤에 기록하오니 등록에 의거해 물건을 바칠 일로 각 해당되는 부서에 공문을 보냄이 어떠할까요? 당상관 결재 시행하라고 함

후

잣나무 판자 4립, 기둥감 2주,

반주홍 2근, 당주홍 1근,

명유 2되, 삼록 4전,

동황 2전, 석자황 2전,

황단 6전, 진분 2냥,

연지 2편, 아교 1근,

당하엽 3전, 청화 5전,

휴지 1근)

35)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三房儀軌, 1739, '龕室新造時假漆匠所用家猪毛二兩桐油煮取所用小鼎一坐'

36)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三房儀軌, 1739, '栢子板四立 樓柱二株 礪朱紅二斤 唐朱紅一斤 明油二升 三礪四錢 同黃二錢 石紫黃二錢 黃丹六錢 眞粉二兩 臙脂二片 阿膠一斤 唐荷葉三錢 青花五錢 休紙一斤'

감실을 새로 만들 때 동유를 끓이기 위한 작은 솥(桐油煮取所用小鼎)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끓여 만든 것은 동유가 아닌 명유(明油)였다. 사용된 명유는 2되였고 동유(桐油)는 소요되지 않았다. 대한제국 초기까지 1되는 600ml 정도³⁷⁾였으므로 두 되는 1,200ml에 해당한다. 명유 2되를 끓이는 작은 솥이 필요했는데 이를 동유 끓이는 작은 솥(桐油煮取所用小鼎)이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에서 동유(桐油)는 기름오동나무의 씨앗에서 짜낸 동유(桐油)가 아닌 끓인 기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선농단친경의궤』와 『선원록교정청의궤』, 『금위영등록』에서는 사용한 기름의 양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송연동유칠(松烟桐油漆)은 소나무 그을음을 바르고 그 위에 도료를 바르는 방식으로 동유를 직접 바른 것이 아니라 동유라고 불렀던 끓인 들기름을 바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왕조의궤에 일부 등장하는 동유(桐油)는 명확히 끓인 들기름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선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유동나무의 기름인 동유(桐油)가 실제 사용된 기록은 없다.

조선시대 궁궐과 여러 건조물을 짓고 수리한 기록인 영건의궤와 수리의궤에는 동유(桐油)가 사용되지 않았다. 화성성역의궤나 산릉의궤에서도 동유(桐油)는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궤를 통해서 살펴보면 조선시대 왕실과 국가적인 사업에 동유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명확하다.

동유(桐油)가 우리나라에는 없고 들기름을 끓인 것을 동유라 부른다는 주장은 조선 후기 다른 문헌에도 반복되고 있다. 1820년에 작성된 유희의 『물명고』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동유는 들기름을 끓인 것이라고 말한다. 『광재물보』는 끓인 기름을 동유라고 부른다고 한다.

桐油 古自以桐子搾油造油衣今只用法油煎造之³⁸⁾

(동유, 옛사람들은 오동나무 씨앗에서 기름을 짜서 유의를 만들었다. 지금은 단지 들기름을 이용해 달여서 그것을 만든다)

桐油, 古所謂桐油皆以桐子搾取 今人只以煎油及積油通謂之桐油³⁹⁾

3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도량형』, 1997, p.99, '광무2년(1902년) 평식원 국가표준기(一升) 용량 0.6리터'

38) 유희, 『物名攷』, 규장각 소장

39) 『廣才物譜』, 2책, 음식부, 규장각 소장

(동유, 옛날 소위 동유는 모두 오동씨앗을 짜서 취했다. 지금 사람들은 단지 끓이고 진하게 만든 기름을 모두 동유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나라에서 동유(桐油)가 사용되었지만 그 실체는 들기름을 끓이고 가공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동유(桐油)가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접어들어 1898년이며 통에 담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나라와의 수교 조약에서 수입물품으로 동유(桐油)가 기록⁴⁰⁾되어 있어 이 시기부터 수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黃桐油一桶價二十五兩⁴¹⁾(황동유 1통 가격 25냥)
六十元 桐油二桶價⁴²⁾(26원 동유 2통 가격)

이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선총독부는 도료로 사용가치가 높은 동유를 생산하기 위해 유동나무를 인공적으로 남부지방에 심어 우리나라에서도 동유가 생산될 수 있었다.

동유는 세계 유일의 건조유로 도료 등에 대량 사용되고 있으나 산지는 중국에 한정되어 있다. 총독부에서는 이를 전남 제주도 및 완도에 약 이만정 식재할 계획 중이었다⁴³⁾.

현재 남부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동(油桐)나무 대부분은 자생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 이때 인공 식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7. 결 론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동유(桐油)가 사용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동유가 아닌 끓인 들기름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종4년(1509년) 중종이 상고에 납입되는

동유(桐油)를 견감하라고 한 기록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이 동유는 중국에서 수입된 동유일 가능성과 법제한 들기름(法煉荳油), 이나 법유(法油)를 지칭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인조 21년(1643년) 적상산성의 사각(史閣)에 동유를 칠하자는 건의 속에 등장하는 동유는 끓인 들기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 영건이나 왕실행사에 사용된 소요물품을 기록한 의궤에서는 동유의 사용량은 전무하다. 유동나무 기름인 동유(桐油)는 대한제국 시기에 수입동유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동유(桐油)가 없다고 한 『조선부(朝鮮賦)』의 기록과 민간에서 들기름을 끓이고는 그것을 동유(桐油)라고 불렀다고 한 『임원경제지』와 『규합총서』의 기록이 당시의 정황을 잘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조물과 관련이 있는 영건의궤와 수리의궤, 산릉의궤에는 동유(桐油)가 사용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명유(明油)의 사용량만 기록되어 있다. 1805년 『인정전영건도감의궤』에는 명유(明油) 여섯 말 두 되가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834년의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서 명유(明油)는 1섬 아홉 말 다섯 홉이 사용되었으나 동유(桐油)는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다른 모든 영건의궤에서도 명유(明油)나 법유(法油)의 사용기록과 구체적인 사용량이 기록되어 있지만 동유(桐油) 사용기록은 없기 때문에 1600년 이후부터 20세기 수입 동유가 들어올 때까지 궁궐과 중요 건물에는 동유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궤 기록에 따르면 건물의 방수도료로 도포된 것은 들기름에 건조촉진제를 넣고 끓인 명유(明油)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건물에 유동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동유(桐油, tung oil)를 도포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관계가 없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조선왕조의궤』
2. 『조선왕조실록』
3. 『승정원일기』
4. 『營造法式』, 四庫全書 文淵閣本
5. 『典律通補』, 규장각 소장
6. 『瀋陽狀啓』, 규장각 소장
7. 『同文彙考』, 규장각 소장
8. 『物名攷』, 규장각 소장

40) 『조불수호통상조약문』, 1888; 韓·白 修好通商條約(한국 벨기에 수호통상조약), 1901; 韓丹條約(한국 덴마크조약) 外部來文 照會 第七十五號, 1902

41) 「各部請議書存案」09, 경효전 수리비용 요청, 1898년 11월 02일, 규장각 소장

42) 「各部請議書存案」20, 휴게소 前後陽室 및 木柵新建費, 1901년 12월 30일

43) 부산일보, 1933년 06월 04일, 3면
'桐油は世界唯一の乾燥油で塗料等に大量使用せられて居るが産地は支那に限られて居る總督府ではこれを全南濟州島及び完島に約二萬町植栽するよう計劃中である'

9. 『廣才物譜』, 규장각 소장
10. 『林園經濟誌』, 규장각 소장, 서명 林園十六誌
11. 빙허각이씨, 정양완 역, 『閨閣叢書』, 보진재, 1992
12. 『統制營啓錄』, 규장각 소장
13. 董越, 『朝鮮賦』, 四庫全書 文淵閣本
14. 『조불수호통상조약문』, 근대사자료집성 11권(한국사데이터베이스)
15. 『韓·白 修好通商條約』,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6권(한국사데이터베이스)
16. 『韓丹條約』, 각사등록근대편, 외부래문(한국사데이터베이스)
17. 『各部請議書存案』, 규장각 소장
18. 李器之, 『一庵燕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9.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14.5
2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도량형』, 1997
21.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81호 단청』, 1970
22. 배만실,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23. 신익철, 『1720년 李頤命·李器之 부자의 연행과 北學의 성격』, 『藏書閣』, 제49집, 2023
24. 장기인, 『한국건축대계3 단청』, 보성문화사, 1991
25. 陳關惠, 『桐油塑料』, 『化學世界』, 제9권, 1954
26. 路化林, 『中國古建築油作技術』,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0
27.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28. 서울대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
29.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
<https://www.museum.go.kr/uigwe>
30.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3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32. 百度(Baidu)百科 <https://www.baidu.com>
33. 부산일보(한국사데이터베이스이용)
34.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zhs>

접수(2023.09.15.)

게재확정(2023.10.17.)